

디지털 정보전, 선거를 어떻게 바꾸는가

글로벌 선거 사례 분석과 2026 대한민국 지방선거 리스크

- 발행일 : 2026년 3월
- 발행자 : 사이브라 코리아 (Cyabra Korea)

디지털 정보전, 선거를 어떻게 바꾸는가

글로벌 선거 사례 분석과 2026 대한민국 지방선거 리스크

- 발행일 : 2026 년 3 월
- 발행자 : 사이브라 코리아 (Cyabra Korea)

사이브라 소개 및 리포트 발행 취지

사이브라(Cyabra)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가짜뉴스)와 조직적 여론 조작 활동을 분석하는 AI 기반 디지털 인텔리전스 기업이다. 사이브라는 공개된 온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짜 계정 네트워크, 조직적으로 설계된 온라인 캠페인, 정보 확산 구조, 딥페이크 등을 분석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정보조작 활동을 식별한다.

디지털 플랫폼이 정치 담론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선거 과정에서 온라인 정보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선거에서는 가짜 계정 네트워크를 통한 여론 증폭, 감정 기반 메시지 확산, 댓글 공간을 활용한 여론 형성, AI 생성 콘텐츠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정보조작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온라인 논쟁을 넘어 실제 정치 담론과 선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사이브라 코리아는 글로벌 선거 사례 분석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정보조작 전략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 선거 환경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분석하기 위해 본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선거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 2026 년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정보조작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Executive Insight

디지털 시대 선거 정보전의 확산

최근 선거는 더 이상 오프라인 정치 활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 담론의 상당 부분이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형성되며 메시지의 생산과 확산 구조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이브라가 분석한 글로벌 선거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 패턴이 확인된다.

- 가짜 계정 네트워크를 통한 메시지 증폭
- 댓글 공간을 활용한 여론 분위기 형성
- 감정 기반 메시지를 통한 빠른 확산
- 정치 이벤트와 연동된 정보조작 활동
-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 신뢰를 겨냥한 내러티브 확산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허위정보 유포에 머물지 않는다. 수백 또는 수천 개의 계정을 활용해 특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실제 시민 담론 속으로 자연스럽게 침투시키며 특정 후보나 정치 세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형성한다.

그 결과 실제보다 훨씬 큰 지지 또는 반대 여론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론 착시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선거 결과뿐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와 선거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선거 환경 변화

최근 글로벌 선거 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플랫폼 중심 구조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과거 선거에서 정치 메시지는 정당 조직, 전통 언론, 방송 토론 등을 통해 확산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TikTok, YouTube, X 와 같은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짧은 영상 콘텐츠, 해시태그 캠페인, 커뮤니티 공유, 댓글 반응 등이 정치 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론 형성 방식도 **개인 발화 중심에서 네트워크 발화 구조로 변화**하였다. 수백 개 계정이 동시에 동일한 메시지를 확산시키면 사용자는 이를 개별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흐름으로 인식하게 된다.

플랫폼 알고리즘 역시 이러한 현상을 강화한다. 분노, 공포, 조롱, 음모론과 같은 감정적 메시지는 높은 참여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정책 설명이나 사실 정보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보조작은 단순한 거짓 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여론의 분위기와 인식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글로벌 사례 분석

디지털 선거 환경에서 실제로 나타난 정보전

사이브라는 필리핀, 대만, 노르웨이, 독일, 폴란드, 호주, 포르투갈, 싱가포르, 대한민국 등 9 개 국가의 선거 관련 온라인 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국의 정치 환경과 이슈는 서로 달랐지만 **가짜 계정 네트워크, 감정 기반 메시지 확산, 댓글 공간 여론 형성, 정치 이벤트와 연동된 정보조작 활동**이라는 공통된 패턴이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의 정보조작 활동은 단순한 허위정보 유포가 아니라 **온라인 담론의 분위기와 여론 인식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특징을 보였다.

국가	주요 이슈	핵심 특징	가짜 계정 비율
필리핀	정치 연합 경쟁	조직적 온라인 여론전	최대 45%
대만	핵에너지 국민투표	공포 기반 메시지 확산	약 32%
노르웨이	총리 공격 캠페인	정치 지도자 신뢰 공격	약 34%
독일	극우 정치 담론	댓글 공간 여론 증폭	약 33%
폴란드	정치 양극화	후보 지지 메시지 증폭	최대 32%
호주	총선 정치 담론	밈 기반 정치 메시지 확산	약 17~18%
포르투갈	총선 정치 담론	댓글 공간 장악	최대 58%
싱가포르	총선 정치 담론	정치 지도자 지지 메시지 증폭	최대 59%
대한민국	선거 담론	선거 불신 메시지 확산	약 29%

① 필리핀 - 정치 가문 경쟁 속 온라인 여론 조작

필리핀 선거에서는 주요 정치 연합 간 경쟁 속에서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전이 나타났다. 사이브라 분석에 따르면 선거 관련 온라인 담론에서 약 **2,300 개의 가짜 계정 네트워크**가 식별되었으며 이들이 생성한 콘텐츠의 **잠재 도달 범위는 약 5,420 만 조회수**에 달했다. 특히 두 정치 연합을 둘러싼 담론에서 가짜 계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lyansa 관련 담론에서는 **2,514 개 계정 중 37%**, KiBam 관련 담론에서는 3,033 개 계정 중 45%가 가짜 계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계정은 특정 후보를 공격하거나 지지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며 실제 시민 담론 속으로 침투했다. 이 사례는 디지털 선거에서 정보조작이 허위정보 생산이 아니라 **네트워크 증폭을 통해 정치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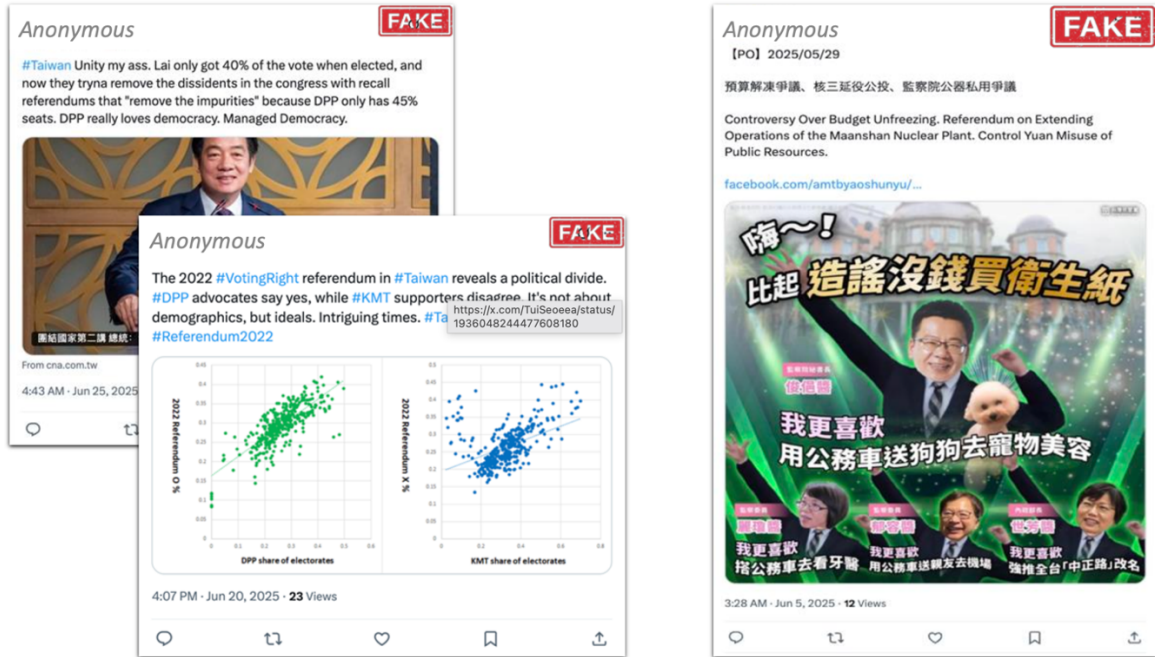
② 대만 - 안보와 에너지 정책을 결합한 공포 기반 정치 메시지

대만에서는 핵에너지 정책과 안보 문제를 둘러싼 국민투표 논쟁 속에서 공포 기반 메시지가 확산되었다. 분석 결과 국민투표 관련 온라인 담론에 참여한 **836 개 계정 중 약 32%**가 가짜 계정으로 식별되었다.

특히 “핵전쟁 위험”, “외국 개입 가능성”, “국민투표의 위험성”과 같은 공포 기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확산되었다. 주목할 점은 정치 이벤트와 활동 증가의 연동이다. **2025년 6월**

23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 공정회를 발표한 직후 관련 허위정보 활동이 약 1,500% 증가하였다.

이 사례는 정보조작 활동이 단순한 온라인 반응이 아니라 정치 일정과 연동된 전략적 캠페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③ 노르웨이 – 정치 지도자 신뢰를 약화시키는 디지털 공격

노르웨이에서는 총리 Jonas Gahr Støre 를 겨냥한 온라인 공격 캠페인이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 관련 담론에 참여한 887 개 계정 중 약 34%가 가짜 계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계정은 총리를 “광대”, “배신자”, “약한 지도자” 등으로 반복 공격했으며 일부 콘텐츠에서는 AI 생성 합성 이미지도 활용되었다. 또한 가짜 계정들은 활동 위치를 유럽·북미·아시아 등으로 위장해 국제적 비판 여론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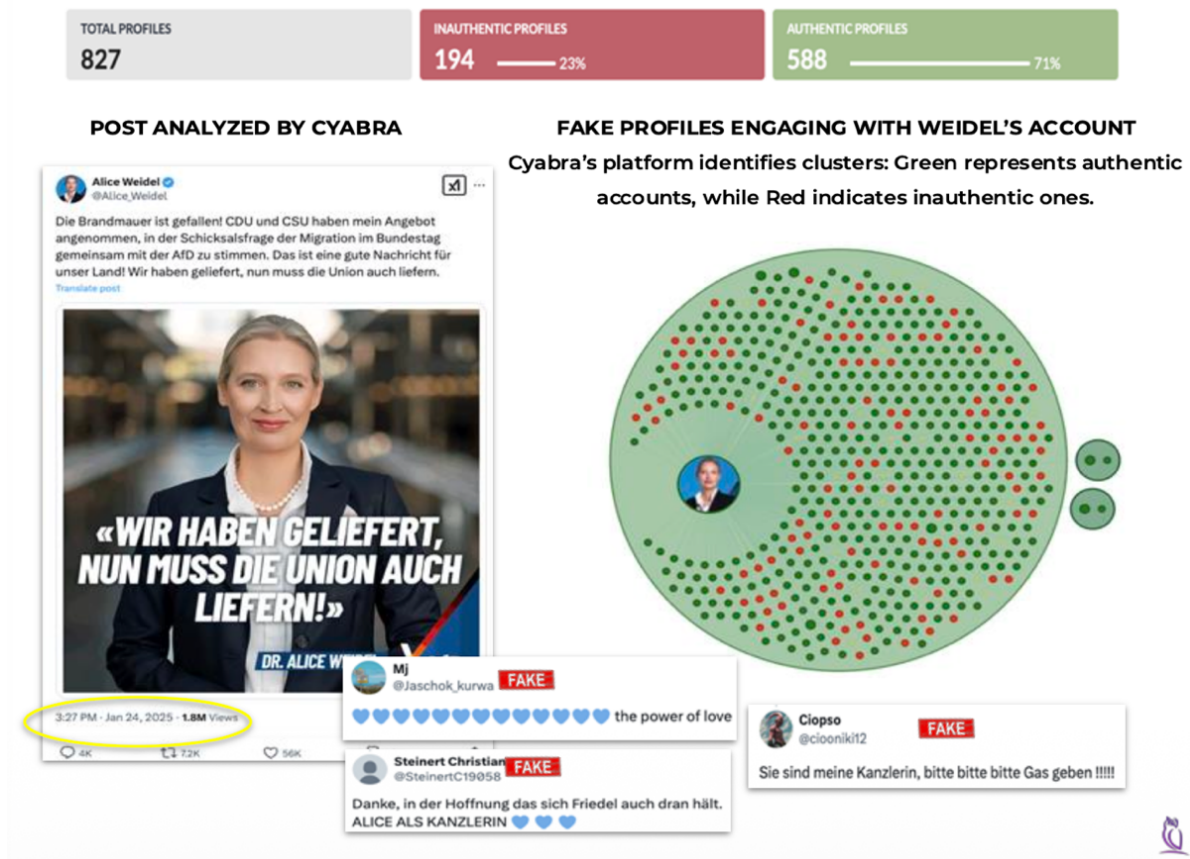
이 사례는 정치 지도자 개인 공격이 제도 신뢰 약화로 확장될 수 있는 정보전 전략을 보여준다.

④ 독일 - 극우 정치 담론이 댓글 공간에서 증폭된 사례

독일 연방선거 관련 담론에서는 극우 정당 AfD 관련 메시지가 댓글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AfD 공동대표 Alice Weidel 관련 게시물의 잠재 도달 범위는 약 1억 2,600만 조회수에 달했다.

분석 결과 해당 담론 참여 계정 중 약 33%가 가짜 계정, 긍정 댓글 중 23%가 가짜 계정으로 확인되었다. 가짜 계정들은 “독일의 미래를 구할 지도자”, “독일을 위한 희망”과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확산시켰다.

이 사례는 댓글 공간이 실제 여론처럼 인식되는 구조를 이용해 정치 지지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⑤ 폴란드 - 정치 양극화 속 후보 지지 여론 증폭 전략

폴란드 대선 담론에서는 정치 양극화 속에서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가 조직적으로 확산되었다.

분석 결과 Trzaskowski 관련 담론에서는 2,347 개 계정 중 약 19%, Nawrocki 관련 담론에서 2,476 개 계정 중 약 21%가 가짜 계정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X 플랫폼에서는 가짜 계정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담론에서는 약 32%까지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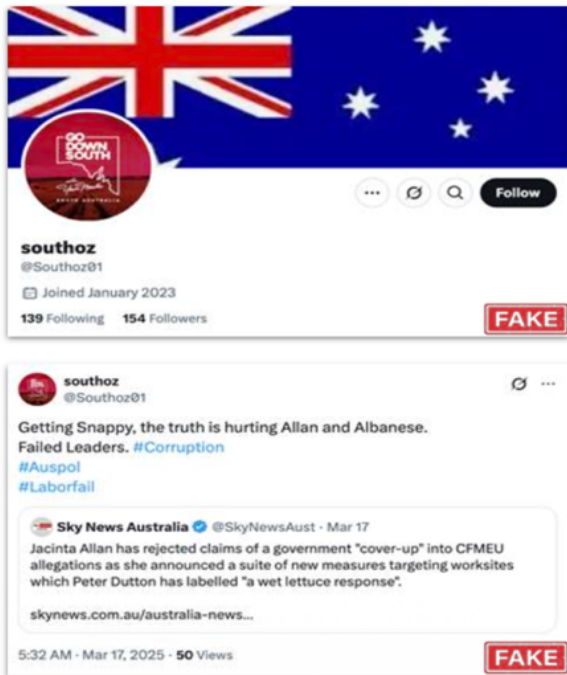
이들 계정은 “오직 Nawrocki 만이 답이다”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며 특정 후보 지지 여론을 증폭시켰다.

⑥ 호주 - 밈과 조롱 콘텐츠로 확산된 정치 메시지

호주 총선 담론에서는 정치 메시지가 밈(meme)과 조롱 콘텐츠 형태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선거 관련 온라인 담론 참여 계정 중 약 17~18%가 가짜 계정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가짜 계정은 500 개 이상의 게시물과 댓글을 생산하며 약 70 만 조회 규모의 콘텐츠 확산을 만들어냈다. 특히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정치인 조롱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사례는 정보조작이 허위정보뿐 아니라 이미지·밈 콘텐츠를 통해 정치 인식을 형성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⑦ 포르투갈 - 댓글 공간을 활용한 여론 조작 전략

포르투갈 총선 담론에서는 댓글 공간이 조직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주요 정치 계정 게시물 댓글 중 평균 약 49%가 가짜 계정, 극우 정당 **Chega** 계정 댓글에서는 약 58%가 가짜 계정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정은 지지 메시지와 공격 메시지를 동시에 확산시키며 정치 담론의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 사례는 댓글 공간이 실제 여론을 보여주는 창구처럼 인식되는 구조를 활용해 정치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⑧ 싱가포르 - 정치 지도자 지지 메시지 증폭 전략



싱가포르 총선 담론에서는 정치 지도자 지지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플랫폼별 분석 결과 X에서는 약 44%, Facebook에서는 약 15%의 가짜 계정 활동이 확인되었다. 특히 총리 **Lawrence Wong**의 설날 게시물에서는 참여 계정 중 약 59%가 가짜 계정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정은 긍정 메시지를 반복 확산시키며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분위기 형성에 활용되었다.

⑨ 대한민국 - 선거 불신 내러티브 확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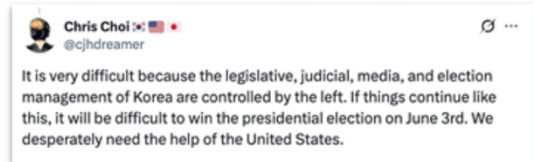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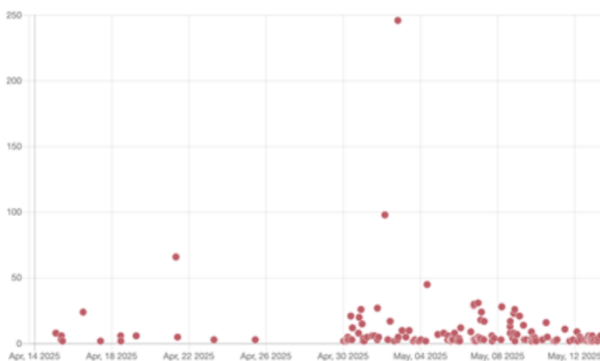
대한민국 선거 관련 온라인 담론에서는 선거 제도와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 메시지가 확산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사이브라 분석에 따르면 총 1,454개 계정 중 약 29%가 가짜 계정, 약 14%는 선거 불신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계정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TikTok 과 X 를 중심으로 선거 조작, 외국 개입, 정치 시스템 통제와 같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한국 내 위치 계정 분석에서는 약 30%가 가짜 계정, 약 33%가 부정 메시지 확산 계정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는 정보조작 활동이 특정 후보 공격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mpact Analysis



글로벌 정보조작 패턴 분석

9 개 사례를 관통하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규모보다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정보조작은 단순히 많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정치 이벤트에 맞춰 특정 플랫폼 공간을 활용하고 특정 감정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필리핀의 증폭형 네트워크, 대만의 공포 내러티브, 노르웨이의 지도자 공격, 독일·포르투갈의 댓글 장악, 싱가포르의 지지 메시지 증폭, 한국의 선거 불신 내러티브는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지만 **공통된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첫째, **가짜 계정 네트워크의 조직적 활용**이다. 가짜 계정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형태로 활동하며 동일한 문장과 해시태그를 반복하고 서로의 게시물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구조는 메시지를 단순히 넓히는 것을 넘어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만든다.

둘째, **댓글 공간의 전략적 점유**다. 최근 정보조작은 게시물 자체보다 댓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댓글은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추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포르투갈과 독일 사례는 댓글이 여론의 ‘증거’처럼 소비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다.

셋째, **감정 기반 메시지의 확산**이다. 공포, 조롱, 분노, 위기감, 혐오, 자부심과 같은 감정적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높은 확산력을 갖는다. 따라서 정보조작은 사실 자체보다 감정을 먼저 설계한다. 대만의 핵 공포, 노르웨이의 조롱, 호주의 밈, 한국의 불신 메시지가 모두 이러한 구조 위에서 확산되었다.

넷째, **정치 일정과의 정밀한 결합**이다. 중요한 발표, 선거 직전 기간, 정책 이벤트 직후에 온라인 활동이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보전이 단순한 반응형 활동이 아니라 **정치 일정과 연동된 전략적 캠페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정치 제도 자체를 겨냥하는 확장성**이다. 과거 선전은 주로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조작은 국민투표, 선거관리, 민주주의 정당성, 정치 시스템 신뢰까지 공격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과 대만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이 점에서 현대의 정보전은 단순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시도**가 아니라, **선거 자체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선거 환경 리스크

한국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조작 활동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갖고 있다. 높은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률, 강한 정치 양극화, 빠른 온라인 이슈 확산 구조는 정보조작 메시지가 짧은 시간 안에 대중 담론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

특히 한국의 온라인 정치 담론은 감정적 반응과 집단적 확산이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조직적인 가짜 계정 네트워크가 특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확산시킬 경우 실제 여론과 구분하기 어려운 온라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한국 정치 담론에서는 **선거 불신 내러티브가 중요한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선거 조작, 외국 개입, 정치 시스템 통제와 같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확산될 경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

지방선거는 특히 지역 개발, 환경 갈등, 부동산, 교통 등 생활 밀착형 이슈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슈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감정적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정보조작 활동이 결합될 경우 지역 정치 담론이 실제 상황보다 과도하게 증폭될 위험도 존재한다.

2026 지방선거 예상 시나리오

글로벌 선거 사례 분석 결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조작 활동은 특정 정치 이벤트와 결합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을 고려할 때 2026년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도 다음과 같은 정보조작 시나리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① 지역 갈등 이슈 증폭

지방선거에서는 개발, 환경, 지역 균형 문제와 같은 지역 갈등 이슈가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된다. 이러한 이슈는 온라인 환경에서 갈등을 증폭시키기 쉬운 소재이기도 하다.

가짜 계정 네트워크가 특정 지역 갈등 이슈를 집중적으로 확산시킬 경우 실제보다 갈등이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 여론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

② 후보 이미지 공격 캠페인

글로벌 사례에서는 정치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짧은 영상 콘텐츠, 밈(meme), 합성 이미지와 같은 형식은 높은 확산력을 갖기 때문에 후보의 개인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AI 생성 콘텐츠 확산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허위 콘텐츠가 정치 담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실제 발언이나 사건처럼 보이도록 제작될 수 있어 유권자의 판단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④ 선거 불신 내러티브 확산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는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메시지의 확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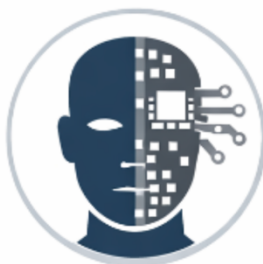
투표 절차, 개표 과정, 선거 관리 기관에 대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캠페인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정치인 평판 공격 콘텐츠 확산

선거 불신 내러티브 확산



지역 기반 갈등 내러티브 확산



생성형 AI 기반 정치 콘텐츠



결론

글로벌 사례는 디지털 시대의 선거가 단순한 정치 경쟁을 넘어 **'정보 환경 경쟁'의 성격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정치 담론의 상당 부분은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형성된다. 메시지는 플랫폼에서 시작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증폭되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이 다시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정보조작의 핵심은 거짓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분위기와 인식을 설계하는 것이다. 수백, 수천 개의 계정을 활용해 특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여론의 분위기와 인식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번 글로벌 선거 사례 분석은 이러한 정보 환경 변화가 이미 다양한 국가의 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높은 온라인 연결성과 빠른 정보 확산 구조, 강한 정치 양극화 환경 속에서 조직적 정보조작 활동은 언제든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2026년 대한민국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정치 경쟁을 넘어 디지털 정보 환경 속에서 여론 형성 구조와 선거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선거 환경을 이해하고 조직적 정보조작 활동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Cyabra Intelligence Insight*



사이브라 코리아 (Cyabra Korea)

Tel. 02-2202-2588 | E-mail. info@futrium.com

www.futrium.com/cyabra

**** 자료 출처 및 편집 고지 ****

본 보고서는 사이브라(Cyabra) 본사가 발간한 글로벌 선거 관련 분석 리포트 「Comprehensive Social Media Analysis of the Two Main Coalitions in the Upcoming Philippine Election」을 포함한 다수의 공식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리포트의 핵심 사실 관계와 분석 논리는 유지하되, 한국 정책 환경과 국내 독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구조와 서술을 재구성한 2차 분석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는 단순 번역이 아닌, 글로벌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정보 환경과 조직적 온라인 네트워크의 작동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편집·재구성된 분석 보고서입니다.